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4. 6. / (총 10매)				
중양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담 당 자	이 선 영 조 영 대 임 예 슬	전 화	044-202-3575 044-202-3805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과 장 담 당 자	황 영 호 김 성 일	전 화	042-481-4545 042-481-438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계획, ▲해외입국자 주간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계획, ▲해외입국자 주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클럽·학원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최근 베트남 유학생들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례와 같이, 휴대 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관계부처·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마스크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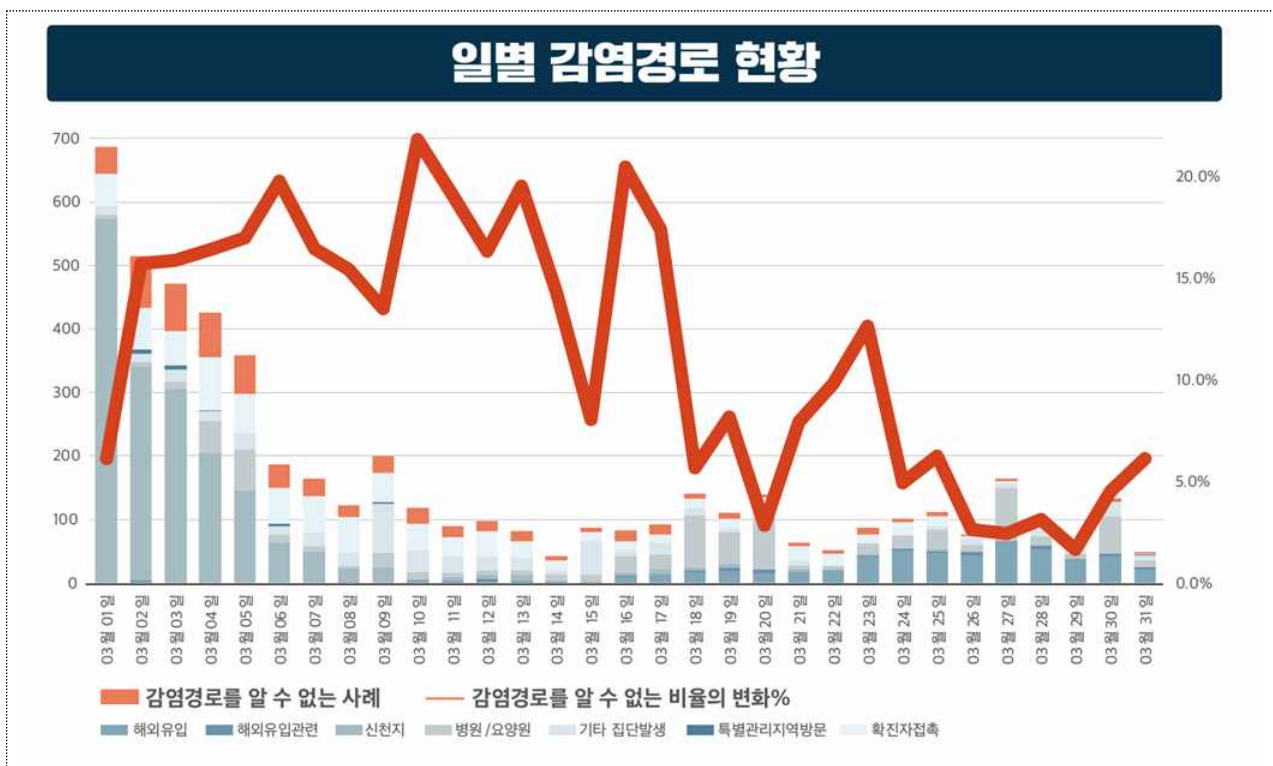
1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19.8%에서 6.1%로 감소*하였으며, 집단감염 사례도 63.6%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 확산 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 3.6 37건 → 3.31 3건

** 집단발생 사례 : 3.12-21 11건 → 3.22-31 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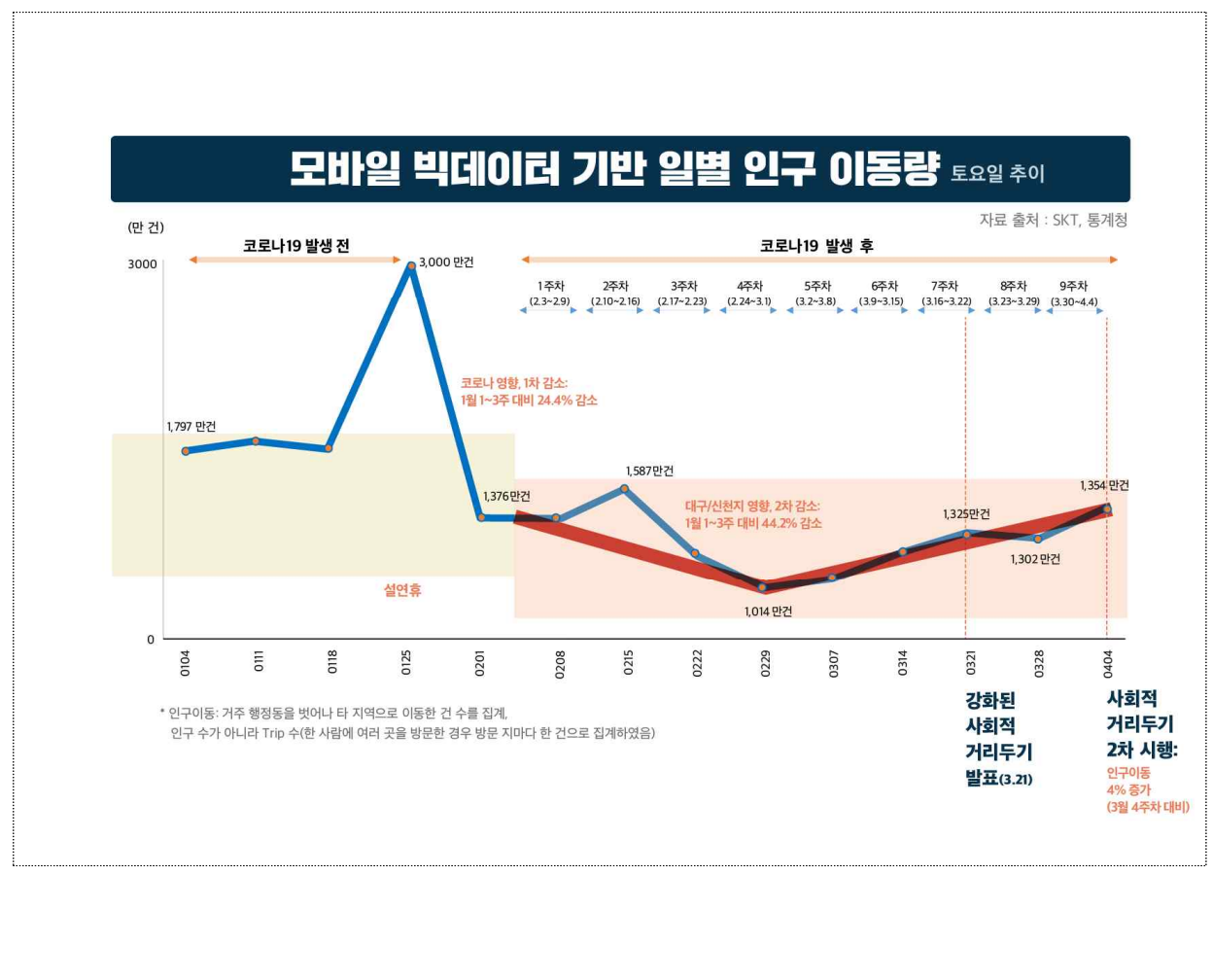
< 신규 집단발생 건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비교 >

조치전											조치후										
3월 12	3월 13	3월 14	3월 15	3월 16	3월 17	3월 18	3월 19	3월 20	3월 21	합 계	합 계	3월 22	3월 23	3월 24	3월 25	3월 26	3월 27	3월 28	3월 29	3월 30	3월 31
1	1		1		4	2	2			11	4			1	1	1		1			

- 한편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개인 또는 가족 단위 나들이 등 이동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개인 이동량 분석 (자료출처: SKT · 통계청) >

- SKT통신 이동량 분석 결과 국민이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 (1.9.~1.22.)에 비해 발생 4주차(2.24.~3.1)에 이동량은 38.1%가 감소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8주차(3.23.~3.29.)인 지난주에는 발생 이전에 비해 28.1%가 감소,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 이동건수 16.1% 증가



< 서울 유동인구 시각화 (4/4) (자료출처: SKT) >

- 오후 2시에는 명동, 강남역, 홍대 등 젊은 연령층이 많이 방문하는 상업 지구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 오후 4시에는 여의도, 한강변, 남산 인근 등 꽃놀이 지역 방문객이 증가

그림. 4/5 오후 2시 기준, 오전 11시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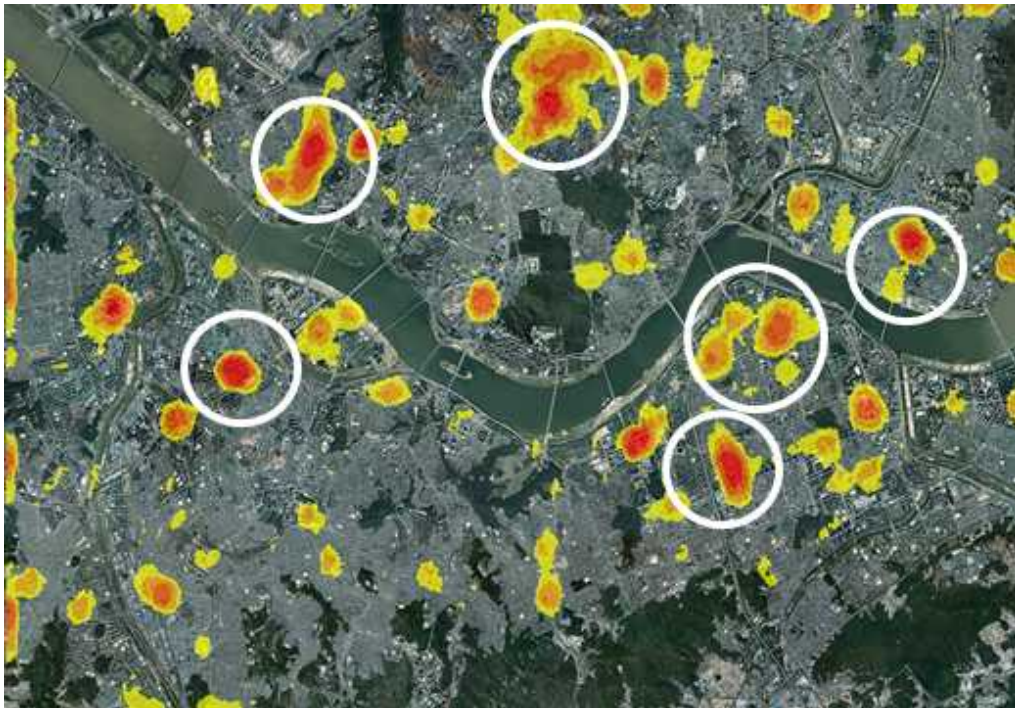


그림. 4/5 오후 4시 기준, 오후 2시 대비 증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였으며, 해외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확인되거나 격리 중 확진되는 경우는 방역망 통제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환자,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난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도 100명 내외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 오늘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줄었으나, 주말 때문에 진단검사가 평소 1만 건 이상에서 6,000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증감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 지난 3주 동안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월요일마다 최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이후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주 변화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월 3주	74	84	93	152	87	147	98
3월 4주	64	76	100	104	91	146	105
3월 5주	78	125	101	89	86	94	81
4월 1주	47*						

* 4월 6일 (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정부의 노력 외에도 개인, 가정, 학교, 직장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점검하였다.
 - 4월 3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383,986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하였으며,
 - 이 중 170,874건(44.5%)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119,706건(32.2%)에 대해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신청 대비 보증서 발급 비율은 울산이 73.4%로 가장 높았고, 제주 (70.9%), 경북 (62.1%), 전남(60.3%)이 뒤를 이었다.
 - 대출 실행 비율은 제주가 6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울산 (50.0%), 대전 (38.5%), 경남(36.8%)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붙임 >
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착용법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붙임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4.3일 0시 기준)

□ 전국 집행 실적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4.2일까지 총 383,986건*의 보증신청을 접수, 이중 44.5%인 170,874건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31.2%인 119,706건의 대출실행

- * 중기부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자체 특례보증, 그 외 일반보증을 모두 포함한 수치
- * 신청건수는 재단별 접수 건수와 접수대기 건수를 합한 수치임

□ 지자체별 집행실적 비교

지역신보 보증지원현황		
구분	보증서 발행	대출실행
	4.3일 0시 누계	4.3일 0시 누계
총계	44.5%	31.2%
강원	51.8%	36.2%
경기	47.0%	33.2%
경남	47.7%	36.8%
경북	62.1%	28.1%
광주	47.9%	32.3%
대구	38.5%	23.1%
대전	49.9%	38.5%
부산	40.0%	35.0%
서울	30.3%	26.1%
울산	73.4%	50.0%
인천	46.0%	36.6%
전남	60.3%	29.2%
전북	40.6%	31.1%
제주	70.9%	60.0%
충남	37.4%	24.2%
충북	45.2%	28.5%

붙임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중요일부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30면 사설/칼럼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정부의 감염원 유입 차단 실패와 종교 집단 대규모 감염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의료진 덕분이다. 특히 감염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간호사의 헌신적 노력이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7%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오펜을 거듭한 정부가 그나마 사태를 진정시킨 의료진에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의 야장을 무너뜨리는 일을 연거푸 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을 운운하며 야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려 나라를 구한 이들에 고마움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부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의 수당 논란은 의료진에 허탈함을 안겼다. 정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는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정쟁을 끝내 판타지 하우루도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방문자의 목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라.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나 듣는다.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이 지친 의료진의 목소리를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보화북쪽 북으로 돌기를 이루는다는 의뢰가받은 호소에 “쌓아두고 쓰려고 해서 그렇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일부의 사는 보화복이 없던 지난수월 가운데 일어났었다. 정부는 북 의뢰기관에서 집단구입을 발탁한것을 수해상징 청구를 하였다고 일방적 논했다. 배제로 실시된 17세 조출생자코로도 90일만동안 한차례(그리고 일곱 차례를 넘)나서 자결까지 잘못되었다. 바 변형 조치실 폐쇄를 시도하자 침착하고 있는 상태 있었다. 도주사건은 못할망정 촉박을 깨려 들어야 되었는가. 대환시협회는 “너서 달라고 읍소한다”가 사정이 좋지하다며 더욱 군현하여 두는 모습에 일진래의 비명장경에 구멍을 씌운 무능한 조선 관리를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유품 상황에서 보듯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무너
지면 속수무책이다. 이미 120여 명이 감염됐지만
묵묵히 헌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경의를 표하고 마
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진천-아산에 격리된 교민
들이 받았던 '침와대 도시락'과 질병관리본부에
간 '침와대 밥차'가 의료진에 당도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님

-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업포” → 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 이후 **일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안국경제

이학영 칼럼



상임논설고문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봉’
국민은 ‘해외출입 자가격리’ 비상

표 10-9. 임의, 임의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

보라기도 힘들고 의로운도 지냈다.” 백련
전 이사는 “다른 나라에는 이미 한국을
먹었다니 삼포작은 일가에 급제하러
간, 외국인 지사로 보낸 일본의 귀족이
들어와서도 한다”는 말도 했다. 외교의
또 다른 가본인 ‘장수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을 정부 기 외제 민간인
의사 앞에서 듣게 될 것, 이게 한국 외교
의 현실이다.

[illegible]

한국의 조약과 관련된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에 대해서까지 일국제국 조약을 허가하라는 의의가,

실질에 이르면 대도 한국 정부만 일국제국 조약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갑열왕 차 단' 해구기 및 발발지자 동원한 조치가 '모든' 영국의 일국제국 조약의 의무권리와 결산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newsfromnews.com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
 (한국경제, 4.1)

-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붙임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